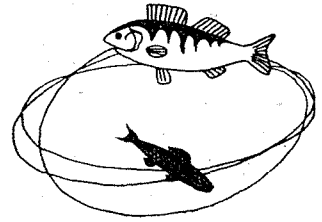


「非常措置宣言」의 언저리에서

正常化의 陣痛을 겪으며……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生産部長 金 允 植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쉽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들을 무심히 넘기는 수가 많다. 모든 문제는 상식을 벗어나서는 무리 현상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현실을 망각 하면 허공으로 부유(浮遊)하게 마련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인양 받아넘기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언젠가 「카네기」의 「인간처세(人間處世)」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 책의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충고의 글귀가 실려있었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내용인즉 “이 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과연 필요없다고 생각하리 만큼 너무나 당연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몸에 지녀야 할 금언들이 있고 충언들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쉽고 상식적인 일들을 실행하느냐 안하느냐 만이 문제이지 어려워서 못할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 기업(企業)이나 정사(政事)나 가정생활 할 것없이 쉽고 당연한 일들만 몸소 실천에 옮기면 보다 합리화(合理化)되고 보다 번창(繁昌)할 수 있을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데서 어려움이 겹치는 것 같다.

우리는 경제권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생활은 수치균형(收支均衡)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사생활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강책(補強策)과 방지책(防止策)을 강구하여 수지의 최소한의 균형유지(均衡維持)에 노력함이 기업의 활로개척(活路開拓)이라 하겠으며 우리 회사가 작년 말에 비상조치선언(非常措置宣言)을 하게 된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 선언은 한낱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그러한 시기를 계기로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비상(非常)이 정상화(正常化)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바탕을 마련해야 할 줄 안다. 그것이 바로 금년도 3·4분기부터 실행코자 하는 목표관리제도(目標管理制度) 실시의 목적이라.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도 수치관리(數值管理)가 시작되는 시

기를 맞이한 셈이된다. 수치는 거짓이 없다. 만일 수처에 조차 이 있거나 허위가 있을 때 그것은 부도(不渡)가 되고 공수표(空手票)가 되는 것이다.

또한 수치에는 실수(實數)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 존재하는 수치가 산 수치가 된다는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수치의 바탕이 되는 것은 통계(統計)이며 통계는 과거의 실적(實績)을 뜻하는 것이니 통계는 장래를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계획(計劃)과 전망(展望)을 내다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수치는 거짓이 없다. 전시효과적(展示效果的)인 수치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문장(文章)속의 형용사(形容詞)나 미사려구(美辭麗句)에 불과하여 알맹이 없는 허술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허수(虛數)는 모든 업무에 차질(蹉跌)을 초래하며 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말과 형용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치(實數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하려는 목표관리(目標理)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충실한 수치관념(數值觀念)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특히 판유리공업은 항상 나의 지론과 같이 일종의 손실공업(損失工業)이다. 원료에서 최종제품(最終製品)을 얻어서 실수요자(實需要者)손에 공급될 때까지 수 없는 공정(工程)을 거치게 되는데 공정을 거칠 때 마다 손실이 수반(隨伴)하게 되니 공정의 안정화(安定化)와 각 공정손실(工程損失)의 방지는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의 첩경이 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정확한 수치업무(數值業務)의 분석(分析)이 뒤따라야 한다.

수치업무는 비단 생산의 직접수단(直接手段)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지니고 있는 전체기구(全體機構)가 생산성(生産性)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업무가 집행된 후 그것이 생산성을 가져왔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는 정확한 표준치(標準值)의 설정(設定)이 앞서야 한다.

또한 그 표준치(標準值)는 국제적(國際的)인 비교치(比較值)로부터 국민경제(國民經濟), 산업 전반문제(全般問題), 동종산업간(同種産業間)의 비교, 단일기업(單一企業) 자체에 이르기 까지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주기적

(週期的)으로 분석(分析), 검토(檢討)함으로써 성과의 차이를 종합적(綜合的)으로 판정(判定)하고 경영관리(經營管理)에 힘이 되고 각종 관리상의 모든 결점(缺點)을 발견하고 그것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생산성 향상의 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관리(目標管理), 즉 수치관리(數值管理)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한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상기 내용을 다루는 것은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한마디로 다원적(多元的)인 상호관계(相互關係)에 얽혀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고(思考)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때로는 대자연을 생각하고 때로는 대인관계(對人關係)를 또는 물질을, 그리고 곤경에 빠졌을 때는 신(神)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대인관계이다.

왜냐 하면 대자연은 말이 없다. 다만 응장할 뿐이다. 따라서 대구(對句)가 없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물질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추잡을 초래하며 변질(變質)하기 쉽다. 신(神)은 신성하고 인간을 구원하여 주며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헤어나지 못할때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상대를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입이 있다. 말을 한다. 감정을 갖는다. 그리고 본다. 또한 느낀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복잡성(複雜性)이다. 그러나 어느 인간에게도 최소한의 인권(人權)은 우선 인정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는 한 문제는 없다. 다만 여기서 다루고 싶은 문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을 경영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원들의 마음가짐이다.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데서 이 회사에 입사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실해야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느끼기를 우리 회사는 사장으로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회사 어느 사회단체보다도 투철하고 밝고 깨끗하다고 본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자랑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은 책임(責任)을 느낄 줄 아는 습관(習慣)과 태도(態度)라고 하겠다.

책임이란 자기가 떠맡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책임은 권한(權限)을 몇 배 앞서야 한다.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되리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다. 권한은 가벼운 것이다. 따라서 차제하기 어렵고 남발하기가 쉬운 것이다.

우리에게는 책임만이 있을 뿐이다. 책임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자기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생활해야 할 줄 안다. 일상업무에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몸소 느낄 줄 아는. 각자가 된다면 모든 업무는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신중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 필요한 것은 교육(教育)과 훈련(訓練)이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세계는 변천해가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속출하고 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기업은 발전하지 않을까? 非常措置의 언저리에서 느낀바를 그대로 적어본다. 하루빨리 정상에 올라서길 바라면서...

(23 P.에서 계속)

풍적 붐 형성과 아울러 그 개발에 力點을 두고 있는 현금이 아닌가.

따라서 무엇보다도 漢藥開發이 시대적 과제로서 등장됨에 따라 우리나라 生藥學界의 오늘의 활동과 내일의 연구는 한층 그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게 되며 또한 이에 따르는 학자적 책임감마저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 漢藥開發의 座標設定이다. 한약개발은 재배, 생산, 가공처리, 성분, 약효, 저장, 수급 및 제제화 등에 이르기까지의 분야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편중되던 斷片的이고 산발적인 연구는 產學으로 연결이 되며 나아가서는 수출에 이어지는 일괄성있는 方向으로 이끌며 재배와 풍토, 생산과 가공처리, 제제와 품질관리, 저장과 經時腐敗 및 輸出入의 統計의 現況등의 조사연구가 병행됨으로써 企業에서 요구하는 연구, 經濟에서 필요로 하는 漢藥, 外國에서 갈구하는

수출상품이 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生藥製劑生産의 장려와 수출촉진이다.

지금까지 分析기준과 약효평가의 모호함을 이유로 억제되어 왔던 생약제제의 연구와 생산을 권장하며 이들 生藥製劑의 현대화된 商品들은 우리의 「韓國學」의 의약품으로서 이 地球 東西南北으로 실어나갈 수 있도록 政府는 全力投球의 公報活動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기에 「좋은상품은 좋은원료」에서의 철리에 따라 漢藥의 生産에서 輸出에 이르기까지의 體系화된 조직과 一元화된 운영만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 한다는 것을 부언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漢藥開發의 向方이 定立되고 順理에 따라 갈때 현대의약자원으로서의 漢藥開發은 한국의 醫藥과 相關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紀元」창조의 역사적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 大望의 現代化와 科學化의 眞理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